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천국입문 열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천주교총회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32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정환 편집장:이형수

2001년도 청지기 훈련 메시지 (1)

영혼에 대한 갈망(요 4:7)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니고데모가 하늘 나라에 서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으로서, 사회적이고 종교적으로 인정받은 자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이라는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천성에 이르는 길을 모르고 있었던 그에게 그리스도는 진실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또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확신했으리라! 왜냐하면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사생활이 난잡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여인은 거듭났고, 구원을 손에 거머쥐었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동배를 뛰어다녔다. 그러므로 버려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얼마나 시원한 생명의 물이 되었는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영혼에 감추어진 그녀만의 가엾은 신음소리를 의문하지 않았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래서 그 멀고 거친 땅아를 마다 않고 걸으오신 사랑의 주님! 결코 여인의 수치를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청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 한 마디의 요청이 그녀를 - 사람들 앞에서 버려지고 스스로 포기한 그녀를 전방에서 희망으로 울렸고, 영혼의 목마름에서 벗어나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셨다. 단지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민족적인 차별도, 유대인의 전통도, 그리고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겸손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또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매주 모이는 금요구역예배의 강신을 위한 제언(1)

구역의 부흥을 사모하라!

1월 마지막 주 화요일(30일)에서 수요일(31일) 사이에 모든 구역의 목사와 전도사가 기도원에서 금요구역예배의 부흥을 위한 모임을 가지게 된다. 이 시간에는 총현에 속한 모든 구역에서 복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각 구역의 지도자들이 복음주의의 회복을 위해 성령의 유성에 귀기울일 것이며, 지도 구역의 각 구역에 대하여 전 단계별 될 것이다. 이것은 총현의 모든 구역장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인데, 각 구역장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게 되면 총현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교역자와 직원이 함께 한 교회사랑 눈은 날의 어느 오후 ...



지난 주간은 전국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주간이었다. 많은 눈이 대로변과 골목골목마다 쌓였고, 함께 불타던 한파는 길바닥을 쫓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우리는 절친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엔 모두들 자기 집 앞의 길은 스스로 치웠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배려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번 폭설에는 서로 미루거나 무관심한 바람에 결국은 모두 피해를 겪게 되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침묵에 빠질 수 없다. 구호나 외침만이 아닌 진정한 영적 부흥, 진정한 복음의 회복에 대한 몸부림이 각 구역에서 매주 일어나야 한다. 기대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주와의 역사가 각 개인의 영혼을 흔들며 깨우시길 기도하자! 총현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고집과 사사로움 마음을 버리고 겸정으로 복음을 불꽃이 십자가 밑에서 뿜구는 날들을 꿈꿔보자! 총현의 청지기들이여! 성경으로의 복귀를 두려워말라!

충현교회 이렇지못하고 예외 없이 눈이 쌓이고 바다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깨어있어 정리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지난주 화요일(9일), 교회 당장 수복이 쌓여진 눈을 치우기 위해 교역자와 직원 모두가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님의 교회를 몸으로 섬기려는 마음도 있었고, 다음날 있을 수요일예배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기도 했었다. 참 감사한 것은 모두가 즐거움으로 참여해 주었던 일이다. 그리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기쁨도 맛보았던 시간이었다. 장정에 삼을 든 모험이 우스꽝스러웠던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은 모든 이들의 눈동자에서 넘쳐 흐릿할 수 있었다(마태복음 22:37) 편집실은 분발했던 한 자매가 밖을 내다보다 이 광경을 보고 사건물명을 해주었다). 미끄럽고 위험했던 언덕이지만, 사랑의 모양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들로 인하여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자꾸 많아지기를 기도해 본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제사 제도는 한국의 명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속적인 숭배사상과 더불어 유교의 영향에 의해 조상을 섬기는 예(禮)로 규정되다가 하면, 죽은 조상을 불러들이고 복을 비는 토속불교의 종교적 색채를 띄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제사 제도는 혼합종교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에 대해 불교와 유교의 역사성을 제시하는 데, 기독교는 그 역사가 2천년 정도로 짧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대조 부'가 아닌지? 그러므로 명절이 되면 무엇보다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금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선언은 인간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십만의 칼이 될 것이며, 치러야 할 대가로 청구되어질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영광 돌게도 아니하며, 감사기도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대조 부'가 아닌지? 마치 우둔하게 되어, 씩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여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롬 1:20-23)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와 감사가 우상에게 돌리지는 것에 대해 불꽃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서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다는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절두라 이름하는 절두의 하나님임이니라"(출 34:14).

간사 예배 모범

◆심양고백	사도신경	대답이
◆찬 송	9장	대답이
◆성서인독	6번	대답이
◆찬 송	248장	대답이
◆설 교	시106:1	인도자
◆기도		인도자
◆주기도문		대답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설교본)

오늘은 민족의 명절입니다. 이 날에는 많은 가사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 ① 선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선한 복자인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굴레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강도 만나서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성취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 ②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와 모든 죄인을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한수까지도 정경으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 ③ 영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다스리시는 구원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은 구원과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보장한 약속인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 한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손길에 붙들지 않아요. 이 놀라운 선을 주님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Peter's wonderful, Wonderful Ministry

(Acts 9:32-35)

"Aeneas, Jesus Christ heals you; arise and make your bed"

When Peter went to Lydda, a small town southeast of Joppa, he met a man named Aeneas. Aeneas was not a physically strong man; his body was paralyzed and thus very weak. His illness caused him to be bedridden for eight years. Peter approached this feeble man and spoke only a few words to him, "Aeneas, Jesus Christ heals you; arise and make your bed" (v. 34). This short statement is all Peter said, and immediately Aeneas got up! Aeneas arose from a bed he had been confined to for eight long years. His body was instantly healed because His faith was sincere. All the people who lived in Lydda, and even those who lived nearby in Sharon saw his restored health, and they returned to the Lord. Peter's little proclamation, his few words, changed the history of the world. Let's look closely at this biblical story, and highlight some key concepts that will enhance the glory and majesty of God in our spiritual ministry.

Aeneas was a real sick man. He had absolutely no hope of recovery. His paralysis had confined him to eight years of lying still in a bed. His muscles were wasting away; his whole body was progressively degenerating. Praise God that Jesus came down to this earth to save real sinners! Amen! Aeneas wasn't an imaginary patient. He was a real man who could not move his arms or feet. He was completely cured because the Spirit of God healed him. No one of the world could have treated and healed him so quickly. Right now, at this very moment, if you

are really sick Jesus can heal your whole heart. Come to Him! God's mercy will receive you. You may think your sin is too heavy, too horrible, or even too late because so much has been destroyed, and that no one can heal you. Know this for certain, you think wrong! Jesus has the power to make you well. He will make you whole through your faith in Him.

Aeneas knew Jesus Christ. The Bible doesn't say anything about Peter asking him whether or not he knew Jesus. It doesn't mention Peter said, "Aeneas, do you know Jesus Christ, and that He came to this earth for sinners?" It just says Peter told Aeneas that Jesus would make him whole. Aeneas knew Jesus. He wanted Christ, not knowledge or the high intelligence of man. His desire was for Jesus. If Aeneas didn't know Jesus, he couldn't have gotten out of bed. Why? Because he wouldn't have believed Peter's words, and if he didn't believe Peter's words he couldn't have been healed. Aeneas knew Jesus Christ wa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who died for him. He knew that no one other than Jesus could heal him. He believed in the power of Jesus! He had faith from hearing the Gospel message before Peter arrived. He absolutely had faith because he was healed.

Aeneas believed in Jesus. Wherever Peter went, he clearly explained the Gospel, especially everything concerning Jesus Christ. So whoever Aeneas heard it from, he heard it correctly. When we read the part of verse 34 that says, "Aeneas,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make your bed", we see that Peter first called Aeneas' name,

and then secondly called Jesus name, and then lastly ordered him to arise and make his bed. This sequence was complete. Medically speaking, nothing could happen. But something did happen, something miraculous! Aeneas immediately got up. He got up because he believed in Jesus. This sinner wanted salvation! He knew only Jesus could fix him, only Jesus could save him. How about you?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really know that only He can fix and save you?

Aeneas' faith witnessed to the Almighty power of Jesus Christ. His faith caused God's grace to come down. All his heavy burdens were erased, thrown away. His agony disappeared. People saw that Christ had saved him, raised him up, and changed him. They saw him singing. Yes, the people of Lydda and Sharon saw poor, sad Aeneas turn into the most joyful man. This miracle made them return to the Lord. As such, it wasn't just Aeneas who received God's blessing but many, many people.

Peter could have stayed home during the intense persecution that was going on in his region. But he didn't hide in his house. He didn't stay home in fear of being found. He went about doing the work of God (see vs. 32). His wonderful ministry touched North, South, East, and West. When he came to Lydda, he didn't ask what Aeneas believed, he just used Jesus Christ's name, and immediately God's blessing came down. Two towns, Lydda and Sharon, returned to the Lord because of it. Look at Isaiah 35:2, "It will blossom profusely And rejoice with rejoicing and shout of joy.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majesty of Carmel and Sharon.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majesty of our God." Sharon saw the majesty of God through Peter's ministry.

Because of one man's sincere act in proclaiming Jesus Christ many people saw the glory and majesty of God. Jesus was Peter's Master, and he was His servant. Jesus Christ was the subject of Peter's wonderful ministry. Do you remember Jesus words to Peter,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men! The power of God always comes through His people. The Gospel spread in Lydda and Sharon and its people returned to the Lord. What a wonderful, wonderful outcome of Peter's ministry. I hope Jesus uses you as His ministry instrument. Peter's ministry continued to flourish in Caesarea, Joppa, and throughout the Judea regions. The Christian church that spread all over the world started from Peter's ministry. His short statement to Aeneas in Lydda was a beginning that continues to spread today. Peter really used Jesus Christ's name, and only Jesus Christ's name. So many people today use His name but do other things. Let's proclaim Jesus Christ. He will heal completely. He will change the world completely. He is the Son of God who died once and for all sin. He resurrected and ascended into heaven to prepare our eternal home. He will return and bring us home! Let's proclaim His name! **A**



김성관 목사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

(행 9:32-35)

“에니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능력 있는 한 마디

베드로가 음바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키타를 방문했을 때,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니야는 몸이 든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 있었고 매우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연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단지 몇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에니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34절). 이 짧은 한 마디의 선포가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이었으며, 에니야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에니야는 병으로 인해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즉시로 나았는데, 이것은 그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키타는 물론이고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몇 마디의 짧은 선포는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에 접근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업을 높이기 될 것입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

에니야는 실제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8년이나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연약해졌고, 그의 모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니야는 상상으로 아픈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하심에 따라 완전히 나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고, 그렇게 순식간에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병들었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나 끔찍하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미 무너져 버렸다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에니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그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십니까?”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예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니야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는 지식이나 수준 높은 인간의 지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인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였습니다. 만일 에니야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는 침대에 있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그렇까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는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이며, 만일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에니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며, 자신을 위해 죽으신 본인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은 것은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도모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긴 일

에니야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니야는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34절에 “에니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기록된 부분

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에니야의 이름을 불렀고,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니야에게 일어나서 그의 침대를 정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해서는 아무 것도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기적처럼였습니다! 에니야는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죄인은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을 고치실 수 있으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가 여러분을 고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의 위대한 능력

에니야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니야의 모든 무거운 짐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심한 고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과 그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가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키타와 사론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슬픔에 빠져 있던 에니야가 가장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주께 돌아온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니야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해 중에도 전파되는 복음

베드로는 불같은 박해가 예루살렘에 지속되는 동안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머무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집에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견되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 머물러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32절). 그의 놀라운 사역은 복음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방에 두루 퍼졌었습니다. 그가 키타에 있을 때, 그는 에니야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고, 즉시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

입니다. 키타와 사론, 두 도시는 놀라운 이적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35:2를 보십시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사론 마을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한사람을 통한 복음의 확장

한 사람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주인이시며, 베드로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의 주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였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음이 키타와 사론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사역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소망하기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이사라, 음바, 그리고 유다 지역 구석 구석에서 풍성하게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의 복음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키타에서 행한 그의 짧은 선포는 오늘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완전하게 고치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떠나며

이 경 희 (대부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현 준 봉 (집사, LMTC 단기선교훈련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자녀 삼으시며 주님께서 망글까지 복음을 전하러 명하셨기에 소망을 안고 LMTC팀의 해외훈련을 위하여 불가리아를 향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사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다.

지난해 28일 김포공항을 이륙하여 긴 시간의 비행을 통해 독일을 경유 29일 오후 6시경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도착하였는데 어두컴컴한 공항의 모습부터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모든 대원들은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고 도착예배를 드린 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에서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불가리아 공화국은 면적이 남한보다 조금 넓은 11만 912km²의 발칸반도 심장부인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인구는 820만명인데 그 구성은 불가리아인(85%), 터키계(10%), 집시(5%)들이다. 종교는 불가리아 정교가 85%, 무슬림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공산권의 패망 이후 개방화에 따라 그들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피폐되어 있고 산업시설의 90% 이상이 방치되어 있어 국민들의 일일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시들은 정부에서조차 방치하여 참으로 대원들이 보기에조차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정부에서 임대 받은 땅위에, 버려진 건축물 폐자재를 얹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으며, 어린 아이들은 교육은커녕 길거리에 나와 구걸하고, 그나마 대도시 또는 소도시 아 근처의 집시 아이들은 거리에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돈을 요구하여 하루하루 벌이 가족들이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맏입니. 때가 지금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

룩한 땅이니” (출 3:5)

우리를 보내서서 그들을 보게 하고 그 실상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리아 내내 600여 개의 집시마을이 있는데 몇 분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모두 기도하며 집시사역을 통하여 그 나라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불가리아에 임하길 기도했다. 아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집시들을 방치되고 있는 이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했다. 훈련기간 중 어렵고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며 모든 대원은 감사기도를 드렸다.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지난 10일 도착하여 폭설과 한파를 겪는 고국의 땅을 땀으로 우리 대원들은 우리의 일정과 여정·날씨·건강·안전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 단기선교소식

수단 의료 단기선교팀과 방글라데시팀이 18일, 몽골팀이 19일에 출국했으며 일본팀이 17일, 스리랑카팀이 20일 귀국했다.

권요섭, 최은아 단기평신도선교사는 수단으로 18일 출국하였다.

이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 하심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2. 선교주일(28일)을 맞이하여 전양연설

시간: 주일 오후 3시 40분~4시 40분

날짜: 1월 21일, 28일

장소: 아멘홀

대상: 외선부교사, LMTC 수강생, 단기선교 참가자

기도제목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선교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2. 팀원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차별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상호 조화를 잘 이루도록.
3. 의료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지 선교사역에 도움을 주도록...
4. 외선부 출석 형제들 고향집 심방사역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팀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5. 현지에서 특역, 속직이 잘 해결되고 좋은 현지인 협력자를 만나도록...
6. 팀원 전체가 늘 건강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7. 방글라데시에 선교거점지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도록...
8. 2001년 겨울단기선교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9. 2001년 겨울단기선교사역이 외선부사역 및 단기평신도선교사역과 잘 연계되어 발전되도록...
10. 충헌교회가 세계교회에 선교의 모범을 보이며 끝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도 자생성 ⑥

1. 전도에 대한 오해
2. 복음의 정의와 전도의 필연성
3. 전도의 내용 (2)
4. 결신의 의미와 내용
5. 전도의 실제적인 문제
6. 전도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

사도 베드로는 행2:40절의 오순절 설교에서 “여러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무슨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전을 주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가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에게 결신의 의미와 내용이 이해시켜서 결신까지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결신의 의미

결신은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며, 가장 신중하고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결신은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기에 시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신의 순간에 다음으

로 미룰 경우나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증거가 그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결신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2) 결신의 내용(방법)

a) 확인 질문을 한다(ex/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결신을 위한 설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불확실한 반응을 보일 때에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야 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설명하지 않고 상냥하게 마무리짓고 또 다른 전도대상자를 찾아야 한다.

b) 결신을 위한 설명의 세 가지 요점

- 믿음의 대상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

-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 (예 3:20, “죽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가 내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도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전도 대상자가 모든 결단을 내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회개(悔改)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으로 연 결신에 주기에 반드시 결신의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c) 결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

구원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결신을 위한 기도’이다. 그러기에 이 단계는 대단히 중요하며 이 때 전도자가 잘 도와주어야 한다. 결신을 위한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준비기도이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적용기도이다. 복음의 내용들을 전도대상자가 적용하도록 한 마디씩 기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요 3:16, 요 1:12절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셋째로, 확신기도이다. 적용기도를 마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면 전도자가 ‘이제 제가 〇〇〇의 구원의 확신을 위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곤조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순서를 말한다.

d)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전도자는 전도대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환영해 준다. 그리고 결신자들을 작성한 후에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으니 결신은 마무리해야 한다. 살림!

(현 천 목사 - 전도위원회 지도)

내가 병원전도를 가는 이유

김 지 혜 (청년부, 74동기)

창년 1부 소그룹 중에 하나인 저희 병원전도팀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삼성역에 있는 강남병원에서 전도, 기도, 찬양을 하는 팀으로 많은 팀원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가족적이면서 따뜻한 온기가 살아있는 팀입니다.

병원에서 전도할때면 지금 우리를 모습들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항상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병원전도하러 처음 병실에 들어가면 많이 망설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만날 때가 가장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들을 만날때면 두렵기 보다는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제게 기도하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년 1부에 올라와서 병원전도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늘 밝고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을 때 마침 머리

가 다시고 계신 교회에서 심방을 오셔서 기도, 찬양으로 예배드려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이 계기로 병원전도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이었던 환자들을 만날 때면 아버지의 병문안을 간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지 늘 기쁨으로 환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병원전도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는 10살의 남자 아이인데 그 아이는 비록 목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늘 웃음을 잊지 않고 저를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소아병동에 갈 때면 그 아이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빨리 회복되어 다시 웃음을 보여준다면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회복되어 예전의 건강하시던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보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젊음의 열기가 수그려줄 줄 모르는 젊음의 거리 강남에는 ...



엄 기 문 (청년부, 73동기)

그 곳에 잠시만 서 있어 보면 오늘날의 유행과 젊음의 다양함을 금세 느낄 수 있다. 아아 강남 일대와 서울시 전역에서 돌려본 젊은이들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시대의 세련됨을 드러내는 바로 이 곳에 매주 한번씩 이 분위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다. 테크노와 힙합, 우리의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는 댄스음악의 음악들... 그 음악에 어울리는 힙합스타일의 젊은이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곳에 - 몇십년 전에 나온 노래를 부르며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이지 음악적으로는 시대를 거스르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곡을 부르는 젊은이들은 확실히 한 모습으로 힘차게 찬양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지나가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뭐하는 젊은이들이지 궁금해서 물어오며 사람들이 있다. 때론 수고한다고 음료수를 사다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모습 중에 제일 가슴 아플 때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는 도중에 시끄럽게 한다면 주위 분들이 화내면서 사역을 못하게 할 때이다. 매주 사역할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받곤한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간다. 복음 때문에 시작된 일기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나 욕해도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유일한 이유이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4영리를 설명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 '전도지'라는 명칭도 모르지만 교회에 출석해 보려고 한다면 그 한 장당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게 된다.

매주 창년 1부 강남 전도팀은 찬양 사역과 전도 사역으로 나누어서 사역하고 있다. 전도 사역에는 GBS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찬양 사역에는 '빛의 소리' 팀이 주축을 이룬다.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강남역 한빛은행에서 전도 사역이 시작된다.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 조건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역사의 주! 창조의 주되심을 함께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왜 예수님이 진리일까?

한 철 (청년부, 71동기)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 속에 어느날 도전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여긴 나로서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알고부터 과연 내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 나 역시 그 기간 절식을 금식하며 지내야겠다는 확신 가운데 결심을 하고 한 달 동안 절식 금식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결심을 하게 했었고 모슬렘들이 바라는 진리는 거짓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확신이 있을까" 라는 조금은 건방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

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확신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정말 느끼고 있나요?

라마단 기간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리의 확신없이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여겨지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예배시간 그 한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출가만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 않는가요. 게다가 그것을 깊이 회개할 줄도 모르는 현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더군요.

우리는 진정 주의 군사된 존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동역자임을 느끼며 사랑으로 대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확신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진

정으로 접한한 자세로 이것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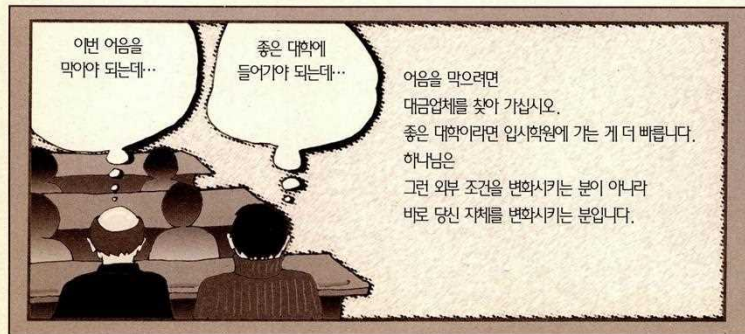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성경이 그가 오실 것을 그리고 온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들이라는 존재는 거짓 신이며 하나님이라 불릴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찬양과 예배를 드릴텐데 이 땅에서 잠시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거두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것이고 확신 가운데 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이며 진실한 기도,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주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 만평

글:그림/김병현



이 형식을 통해 논표의기 하나를 시도 그리고 두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③차량부: - 차량 주차 계획 수립 준비 및 교통안내 표시판 설치, 주차 장소 지정
- 안내위원 배치 / 주변환경 정리 및 잡상인 계도

떠난 사람들은 늘 반갑다

김 성 점 (전도사, 중등2부 부지도)



작년 중등 2부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대단히 시달린 한 해였기 때문이다. 그 나이의 아이들이야 뭐 다 그렇지 하고 말할 수도 있었지 모르지만, 사실 작년에 중등 2부 아이들은 그 어느 기수보다도 유별났다. 선생님들 마음껏 유별하는 아이들의 숨겨져 일부 교사들은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공포심까지 표현했다. 어느 한 교사는 작년에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세 해에는 아이들을 말지 않았다고 말하기까지도 했다. 물론 그 선생님을 달래는 말은 이런 것이었다. "올 해 아이들은 아주 착하니가 걱정 마세요."

선생님들은 매우 주일 교사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다. 그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꾸준한 기도뿐이라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본 후 자신을 버린 선생님들의 고백과 결론이었을 것이다. 아마 달래도 보고 압박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가르치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또 다른 인간이 바꿀 수

는 없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쨌든 이 극성스런 아이들 덕에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이다. 사실 내 유대론 초기 화면에 "기다림"이라는 문구 적혀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말이 작년 중등 2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절실하게 느껴졌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기다림을 가지고 꾸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늘 한결 같이 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설기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 지긋지긋한 이 골칫거리들!" 하면서 비명을 외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2000년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면서 솔직히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일선에서 아이들과 하루 부딪치던 선생님들이야말로 이러한 느낌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그래, 어서 어서 중등 3부로 올라가라. 그래도 나이를 좀 먹으면서 얹혀져있지", 라

고 말하면서 동시에 중등 3부 선생님들에게 엄정 짐을 쓴 것도 사실이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이 든다. 어떻게 아이들을 지긋지긋해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우리가 품는 영혼이었는데... 하지만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달린 만큼 그 아이들이 사람스런지도 모른다. 몇 주전만 해도 교회 복도에서 만나면 지레 격정과 한숨의 감정을 느끼게 한 그 무서운 아이들이 새 해 첫 주 복도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막상 떠나 보내고 나니 괜히 더 반갑고 예뻐 보이는 것이다. 인사가 달라졌다. 전에는 그냥 "응, 그래 잘 있었니?" 수준의 인사였지만, 새해에 그 무서운 아이들을 만났을 땐 "와, 이게 누구야? 정말 반갑다."로 변해있었다. 그 인사는 지금 내가 그 아이들을 향해 가진 아쉬움과 후회이다. 비록 아이들이 말을 참 안 듣고 말생을 부렸지만, "그때도 좀 더 잘해줄 것을..." 하는 후회, 팬지 그 아이들이 다시 말으면 작년보다 더 애정과 아끼는 마음으로 반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어쨌든 그 무서운 아이들이 이제는 중등 3부에 있다. 작년에도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변해왔고 또 올해도 계속해서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신념과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난 생각했다. "떠난 사람들은 늘 반갑다."

나의 중학생팔

정 세 진 (중등1부 부지도)

나는 아직 학교에서 졸업은 안 했다. 그래서 아직 '학생'이고 그래서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최고선배'이다. 하지만 나는 중학교에서 만큼은 어엿한 중학생이다.

내가 중학생이 된 지는 얼마 안 되었다. 12월 31일 낮 12시 23분정도에 나는 소년부가 아닌 어엿한 중등부교실에 발을 디뎠다.

"하하하 중등부다. 나도 드디어 중학생이다."라고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곳이 바로 이곳 중등부이다. 그런데 별로 다른 것은 없었다. 설레임과 기대는 몇분 안 되어 사라졌다. 왜냐하면 소년부와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보니 다시 내가 새 학년에 올라왔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공과책을 받아서 내가 확실히 중학생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저금도 설레인다. 이번 1년은 너무도 기대된다. 앞으로 중등부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 즐거움 1년을 보내고 싶다.

2001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부서명	기 간	장 소	주 제	주최단체	주최한솔	강 사
영아부	2/19(월) - 20(화)	선104호	예수님 섬기는 우리집	시1121	305장	한영준 전도사
유아부	2/19(월) - 20(화)	교212호	우리집은 말씀의 사랑방	요15-9-12	434장	김정자 전도사
유치부	2/19(월) - 20(화)	교205호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12-2	456장	정연희 전도사
유년부	2/20(화) - 21(수)	교314호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요14-6	299장	이정철 전도사
초등부	2/20(화) - 21(수)	교307호	예수님 사랑방	요일4:10	40장	김윤식 전도사
소년부	2/26(월) - 27(화)	교407호	진정한 성공	빌1:20	505장	김영기 강도사
중등 1부	1/29(월) - 31(수)	충현기도원	Click! 복음	홀1:1 - 3	202장	여국근 목 사 김영진 전도사
중등 2부	1/29(월) - 31(수)	충현기도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요20:31	411장	이종철 목 사 김영철 전도사
중등3부	2/22(목) - 24(토)	충현기도원	균형잡힌 성장을 위하여	눅2:52	394장	서광진 목 사 이달현 전도사
고등부	2/20(화) - 22(수)	충현기도원	피 흘리기 까지	히12:4	347장	김영훈 목 사
대학부	2/5(월) - 8(목)	충현기도원	내 시대기 주의 손에 있소서	시31:15	521장	류병희 목 사
청년 1부	2/23(금) - 24(토)	제1,2교육관	예수 청년, 땅 끝까지	마28:18-20	276장	이홍성 목 사
청년 2부	2/28(수) - 3/1(목)	충현기도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자	골12:1-2	210장	이준정 목 사
청년 1부	2/24(토)	갈릴리움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벧전 2:9	276장	김동하 목 사
신혼가정부	2/28(수) - 3/01(목)	충현기도원	우리가 가진 비밀	골1:27	194장	김민식 목 사
사랑부	3/1(목)	충현복자전	기도하는 생활	마7:7-11	482장	노현목 목 사
예배대부	2/26(월) - 27(화)	충현기도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4:4	455장	박인기 목 사

사랑이란?

박 지 영 (중등3부)

사랑이란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순수하고 청결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별을 쥐도 모자랄 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줄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별의 수도 중요치 않고
순수나 청결도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남을 위하고
예수님처럼 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